



팔색조 여배우 염정아의 꿈

연기파 주연 배우로 스크린과 TV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배우 염정아.
탄탄히 다진 연기 내공으로 40대 여배우
중 단연코 최고의 빛을 발하고 있는
그녀의 통런 비결은 무엇일까.

글 김연수 기자 사진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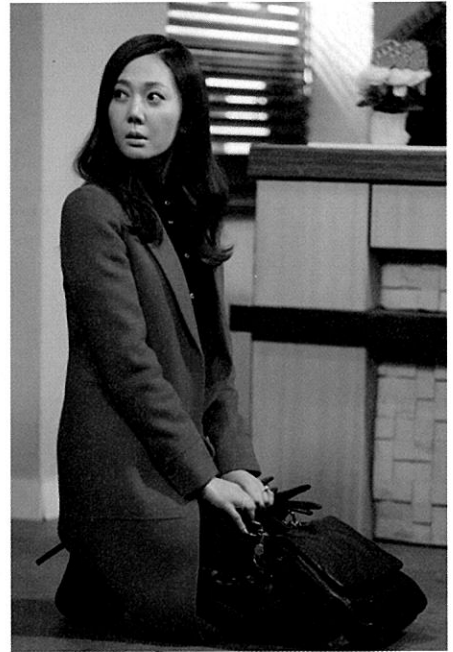
최근 인기리에 방송 중인 SBS 주말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에서 '남나비' 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2년차 배우 염정아. 콧대 높은 전직 톱스타 남나비를 연기하는 염정아는 빈틈이 많은 코믹한 캐릭터 연기부터 상대 배우와의 달달한 로맨스 연기, 분노와 눈물이 가득한 걱정적인 연기까지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 주며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여배우

최근 배우 염정아의 활동이 무척이나 눈에 띈다. 2011년 큰 이슈를 모았던 화제의 드라마 <로열 패밀리>,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간첩>, <사랑의 묘약>, 그리고 다양한 광고를 통해 그녀가 숨겨 놓았던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로 도도하고 시크한 현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던 염정아는 영화 <간첩>을 통해 역척스러우면서도 유머 가득한 아줌마 간첩을 열연하며 180°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KBS <1박 2일_여배우 특집편>에 출연했던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아하기만 한 줄 알았던 여배우가 밥과 김치 앞에서 카메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성을 상실하고, 또 자연스럽게 민낯을 공개하는 그녀의 모습에 마치 우리 이웃 같은 편안함과 소탈한 성격을 엿볼 수 있었다.

“망가지는 게 재미있어요. 시청자들이 저를 보고 마음껏 웃어준다는 그 자체가 즐거운 작업이거든요. 코믹 연기를 하는데 몸을 사리거나 거리낌은 전혀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제 자신의 생활이 더 밝게 변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배우와 미스코리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염정아는 지난 1991년 미스코리아 선을 수상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전 중학교 때 꿈이 배우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고 싶었어요.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미스코리아를 많이 배출한다는 미용실에 무턱대고 찾아갔죠. 스스로 제 자신을 추천해서 나가게 됐다고나 할까요(웃음).”

미스코리아 선 이외에 그녀는 미스 인터내셔널에 출전, 3위를 입상하기도 했다. 서구적인 이목구비와 큰 키, 좋은 매너로 대형 미인대회에서 연속으로 상을 받았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연예계의 러브콜을 받았고 지금까지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올바르게 연예계 활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어렸을 때 꿔던 두 개의 꿈, 미인대회 타이틀과 배우의 꿈을 모두 이룬 염정아. 그녀가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꿈은 무엇일까.

봉사와 나눔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녀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축복받은 체질이다. 생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는 그녀는 언제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쉬운 일이지만 건강한 체력을 쌓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관리를 한다.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쉬고 있을 때에는 1~2kg 찌기도 하지만 걸으면 티가 나지는 않죠. 운동은 꾸준히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식습관이 무척

중요한데 저는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높은 하이힐을 신는 대신 발이 편한 운동화를 주로 신고 방송일이 없을 땐 화장을 아예 안 해요. 제가 보기보다 많이 수수한 편이죠?(웃음)”

그녀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으로 바쁜 중에도 짬을 내서 장을 보거나 세탁소에 가는 등 가능하면 집안일은 스스로 하는 편이라고 한다.

“스스로 하는 걸 워낙 즐기기도 하고 집안일은 제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전 타고난 살림꾼인가 봐요(웃음). 아이 키우면서 천상 아줌마가 다 된 거죠.”

친구 소개로 만나 2006년에 결혼, 1남 1녀를 두고 있는 주부 8년 차로 접어든 그녀는 무엇을 사더라도 항상 남편과 아이들 것만 챙기게 됐으며 편안한 웃음을 보인다. 작년 연말에는 부부가 함께 아프리카 봉사 활동을 다녀오기도 했고, 그 봉사 활동을 계기로 더욱 진한 모성애를 느끼게 됐다고 한다. 나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그녀는 한 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으로 손가락이 붙은 채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정상적인 손가락을 찾아주기도 했다.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더욱 눈에 밟힙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